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2023. Vol. 23, No. 4, 361-383 https://doi.org/10.33703/cbtk.2023.23.4.361

강간통념 수용척도의 비교*

유 정 아†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이 연구는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를 비교함으로써 강간통념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강간통념 수용도를 비교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강간통념 측정도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 306명(남 149명, 여 157명)을 대상으로 일리노이 강간통념 척도(K-IRMA),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K-SRMA), 한국판 강간통념 척도(RMA),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신념 수용도(K-SIAMA),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는 총합과 하위요인들과의 관계가 r = .29에서 .88 사이로 나타났다. 둘째, 데이트 및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모든 측정도구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K-IRMA 척도는 20대의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데 유의한 반면, RMA 척도는 30대, 40대, 50대의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데 유의하였다. K-SIAMA 척도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측정하는 데 유의하였다. K-SRMA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일부 하위요인에서 낮은 상관에서 보여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각 척도를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나이를 비롯한 대상에 따라 강간통념 수용도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 이를 고려해야 함이 시사된다. 강간통념에 대한 분화된 인식과 측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서의 치료목표를 보다 세심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적 교육 자료에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주요어 : 강간통념, 일리노이 강간통념 척도,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 한국판 강간통념 척도,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통념 수용 척도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로, 2023년 WCCBT(World Confederation of Cognitive and Behavioural Therapies)에서 포스터 발표 되었음.

† 제 1저자: 유정아,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 졸업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E-mail: song@konyang.ac.kr

강간은 강력범죄의 하나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같은 성차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 형성에 도모하고 있다(최윤정, 박성정, 김효경, 2020). 그러나 최근 3년간의 강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분기를 기준으로 2020년에 7,019건, 2021년에 7,524건, 2022년에 10,216건으로 강간 발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2022). 성인식 교육의 증가와는 다르게 강간 범죄가 증가하는 현황을 고려하면,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심리적 변인을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강간 가해자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언급되는 인지적 왜곡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Abel, Gore, Holland, Camps, Becker, & Rathner, 1989; Hall, & Hirschman, 1991). 그들은 강간 행위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강간통념(rape myths)이라 한다(이석재, 1999). 실제로 성범죄와 강간통념은 강한 상관이 있으며, 강간통념은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기도 하다(Helmus, Hanson, Babchishin, & Mann, 2013; Marshall, & Hambley, 1996).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자들만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강간통념이 강간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Nunes, Pettersen, Hermann, Looman, & Spape, 2016). 국내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측정했던 연구를 보면 여자대학생의 경우 남자대학생보다는 낮지만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숙희, 강희순, 김윤희, 2010). 즉, 강간통념은 성범죄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지적 요소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강간통념에서 '통념(myth)'은 고정관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 혹은 더 넓은 사회에서 공유된다(Gardner, MacIntyre, & Lalonde, 1995).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인 문화적 특징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친다(김영희, 1985). 흔히,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라는 인식은 성관계에도 적용되어 남성들은 성관계의 권위자로, 여성들은 이를 수용하도록 사회화될 수 있다(Birns, Cascardi, & Meyer, 1994).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중 성행동과 관련된 고정관념은 강간통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onsway, & Fitzgerald, 1994). 국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강간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여성의 무고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강문봉, 공정식, 2017).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가해자에 범죄행위를 최소화하고, 범죄 행위를 거짓으로 보고한다고 믿음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미정(2004)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피해 유발 질문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

성범죄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강간통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간통념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Hogge, & Wang, 2022; Thelan, & Meadows, 2022; Urban, & Porras Pyland, 2022). 첫 번째 시도는 Burt(1980)의 강간통념 척도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강간과 성폭행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 적대적 성적 신념, 대인관계 내의 폭력 수용 정도가 강간통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Burt, 1980). 해당 척도는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최초의 시도뿐만 아니라 강간통념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을 언급하여 연구 주제를 넓혀가는 데 의의가 있었다(Schewe, & O'donohue, 1993).

Burt(1980)의 척도가 개발된 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강간 통념이 보다 다양한 태도, 행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Burt (1980)의 강간통념 척도가 다양한 영역을 측정하지 못하고 문항의 내용도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은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Lonsway, & Fitzgerald, 1994). 특히 Burt(1980)의 강간통념척도가 주로 피해자의 특성과 역할에 초점화되어 있고, 구어체를 사용하여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 맞는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개선점으로 삼아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이하, IRMA)이 개발되었다(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IRMA 척도는 7가지 하위요인으로 강간통념을 구성하며 강간통념의 다차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IRMA 척도는 강간통념을 포괄하는 구성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둔 만큼 이후 강간통념 혹은 성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는 데 본보기를 제공했다(McMahon, & Farmer, 2011; Powell, Henry, Flynn, & Scott, 2019).

IRMA 척도의 개발 이후에도 강간통념 척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IRMA 척도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문항의 표현이 직접적이어서 평가 상황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많은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싶은 은밀한 욕구가 있다.(Many women secretly desire to be raped.)'와 같은 문항이 있다. 이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은밀하게 수용되는 강간통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기존의 IRMA 척도를 보완한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Subtle Rape Myths; 이하, SRMA)가 다시 개발되기에 이르렀다(McMahon & Farmer, 2011). SRMA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IRMA의 7개 하위요인 중 4개의 하위요인(여자가 요구했다,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 진짜 강간이 아니다, 여자가 거짓말 했다)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 비난과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SRMA의 저자는 이러한 문항들을 미묘하게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의 하위요인에 술과 관련된 항목 3가지를 추가하여 강간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통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SRMA 척도는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를 부정하고, 은밀하게 기저하고 있는 피해자의 비난과 관련된 통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강간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에 대한 불인정이나 비난 등 피해자에 대한 통념 의식과 관련이 있었다(권인숙, 이건정, 김선영, 2016). 다음과 같

은 통념은 범죄행위에 있어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Maddocks, 2018),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Grubb, & Turner, 2012; Ruseell, & Hand, 2017).

국내에서도 강간통념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척도는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되고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국내 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가해자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피해자 비난과 관련있는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성폭행 피해자의 책임 귀인, 피해자의 성경험으로 구성된다. 해당 척도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는 강간통념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주었으며(김재은, 김지현, 2016; 박경, 2008),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강춘희, 권재한, 2021; 유재두, 송병호, 2009). 반면, 성교육의 보편화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이도경, 김형빈, 2022) 성 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리노이 강간통념 척도(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와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McMahon & Farmer, 2011)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연구가 최근 진행되었다(유정아, 2023). 먼저, 한국판 일리노이 강간통념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 피해자 비난과 관련 있는 '여자가 거짓말했다', '여자의 행실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하는 '여자의 의도가 있다', '여자가 요구했다', '진짜 강간이 아니다', 강간은 평범한 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강간은 일탈적 사건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미묘한 강간통념 척도의 하위요인은 '진짜 강간이 아니다',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 '여자가 거짓말했다', '여자가 요구했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인 이미지 기반 성 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Powell 등(2019)의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송원영, 2021).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피해자 비난과 관련 있는 '비난'과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최소화/변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네 가지의 강간통념 측정 척도들은 피해자 비난과 같이 서로 공유되는 개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위요인의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하위요인의 개념과 서로의 연관성을 살펴본 후, 강간통념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간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측정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시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수용하는 것은 피해자 비난과 연관이 있었으며(Grubb, & Turner, 2012), 더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었다(Franiuk, Seefelt, Cepress, & Vandello, 2008).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Just Word Belief)을 수용할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연구결과(Hayes,

Lorenz, & Bell, 2013)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은 적게 한다는 사실도 제시되었다(Strömwall, Alfredsson, & Landström, 2013). 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또한 강간통념과 연관이 있는데, 성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이를 명목상 저항이라 판단하며, 성적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ser, Viki, & Power, 2006). 이러한 성차별적 태도는 가부장적 사회체계에 의해 유발되며, 해당 문화권에서 남자의 공격성은 명성에 대한 위협과 모욕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여겨져, 강간 피해자는 자신과 집안에 대한 모욕을 받아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기도 한다(Warrick, 2005). 이렇듯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적 분위기, 개인적 특성으로 형성되는 복합적인 인지적 연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간통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행변인들의 연구가 진행되며, 연령, 성별, 교육수준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urt, 1980). 연령대가 높을수록 혹은 청소년기에 가까울수록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Beshers, & DiVita, 2021; Kassing, Beesley, & Frey, 2005). 성별에 따르면 여자와 남자 모두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으나(Boxley, Lawrance, & Gruchow, 1995),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컸다(오숙희, 강희순, 김윤희, 2010). 남성의 높은 강간통념 수용은 성차별적 태도를 유지하게 하고(Davies, Gilston, & Rogers, 2012), 여자의 높은 강간통념 수용은 성적 자기주장을 어렵게 하며 성적 피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박선미, 송원영, 2012).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강간통념은 넓은 의미로 강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지만, 세부적으로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비난인지, 가해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지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강간통념 척도를 선택하고 측정해야 강간통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네 가지 도구의 연관성을 통해 강간통념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으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 정도의 차이를 각 측정도구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해당 측정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 앞서 대상자들에게 성(性)과 관련된 민감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포함한 연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334명 중 사회적 바람직성 표준화 점수가 1.5 이상인 28명의 자료를 제외한 306명의 자료를 집단비교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149명(48.7%), 여성 157명(51.3%)이었고, 연령대는 20대 80명(26.1%), 30대 72명(23.5%), 40대 77명(25.2%), 50대 77명(25.2%)이었다. 거주 지역은 대전 90명(29.4%)과 서울 71명(23.2%)이 가장 많았고, 충청 41명(13.4%), 경기 39명(12.7%), 인천 21명(6.9%), 경상 10명(3.3%), 전라 10명(3.0%), 부산 8명(2.6%), 세종 8명(2.6%), 광주 3명(1.0%), 강원 3명(1.0%), 대구 2명(0.7%) 순이었다.

강간통념 수용 측정도구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네 가지 도구는 한국판 일리노이 강간통념 수용 척도(K-IRMA), 한국판 미묘한 강간통념 수용 척도(K-SRMA), 한국판 강간통념 수용 척도(RMA),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SIAMA)이다. 각 척도에 대한 특징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한국판 일리노이 강간통념 수용 척도 (Korean version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K-IRMA)

Payne, Lonsway와 Fitzgerald(1999)가 강간통념 수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유정아(2023)가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식 7점 척도(1점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점 =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yne 등(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표 1. 비교에 사용한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특징

척도	문항 수	하위요인의 개수와 요인 명
K-IRMA (2023)	31	7개 : 여자의 의도가 있다,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 여자가 요구했다, 여자가 거짓말했다, 여자의 행실이 나쁘다, 진짜 강간이 아니다, 강간은 일탈적 사건이다
K-SRMA (2023)	16	4개 : 여자가 거짓말했다, 여자가 요구했다,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 진짜 강간이 아니다
RMA (1999)	20	4개 :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K-SIAMA (2021)	16	2개 : 최소화/변명, 비난

한국판 미묘한 강간통념 수용 척도(Korean version Subtle Rape Myth Acceptance Scale, K-SRMA)

McMahon과 Farmer(2011)가 은밀한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IRMA 척도를 보완하여 개발한 것으로, 유정아(2023)가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미묘한 수준의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McMahon과 Farmer(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이석재 강간통념 수용 척도(Rape Myth Acceptance Scale)

Burt(1980)가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이석재(1999)가 보완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척도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9점 척도(1점 = 매우 부정, 9점 = 매우 긍정)로 평정한다.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orean-Image-Based Sexual Abuse Myth Acceptance, K-SIAMA)

Powell, Henry, Flynn와 Scott(2019)가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통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송원영(202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식 7점 척도로(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평정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이미지 기반의 성적 학대 통념 수용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송원영(202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7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집단 변인

데이트 성폭력 가해 유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 (1996)의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를 국내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김정란(1999)의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개 하위요인(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성적 폭력의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1점 = 전혀 없음, 5점 = 매우 자주) 평정하도록 고안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험의 유무를 측정하기 '전혀 없음(1점)'을 '경험 없음'으로, '가끔(2점)'부터 '매우 자주(5점)'은 '경험 있음'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김정란(1999)의 연구에서 성적 폭력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70 ~ .78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 가해 유무

Powell, Henry, Flynn, & Scott(2019)이 사용한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 측정 문항을

송원영(2021)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이며, 마지막 7번 문항('관련 경험 없다')을 제외하고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을 묻는 6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험의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되는 문항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6가지 문항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한 대상을 '경험 있음'으로 7번 문항('관련 경험 없다')을 선택한 대상을 '경험 없음'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

Stöber(2001)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17)를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2015)가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총합을 표준화 점수로 변환한 후 1.5 이상인 대상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Edens, Buffington, Tomicic, & Riley, 2001).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와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상관의 기준은 .90 이상일 때 아주 높은 상관, .70 이상 ~ .90 미만일 때 높은 상관, .40 이상 ~ .70 미만일 때 적절한(또는 보통) 수준의 상관, .20 이상 ~ .40 미만일 때 낮은 상관, .20미만일 때 아주 낮은 상관으로 보았다(Guilford, 1956). 둘째, Harman(1976)의 단일요인검정을 통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이 측정 변수에 대해 50% 이상 설명할 경우 동일방법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강간통념 측정 도구 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CFI와 TLI 값이 .90 이상일 때(강현철, 2013), RMSEA 값은 .08 이상에서 .10 미만일 때 보통의 적합도로 보았다(Browne, & Cudeck, 1992). 넷째, 데이트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크기가 30 미만으로 모수 검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McKnight, & Najab, 2010).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과 강간통념 수용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344명 자료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 과

강간통념 측정 도구들 간 상관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4가지 척도의 주요 변인 간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강간통념 수용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n =306)

		K-IRMA								K-SRMA					RMA				
		1	1-1	1-2	1-3	1-4	1-5	1-6	1-7	2	2-1	2-2	2-3	2-4	3	3-1	3-2	3-3	3-4
K-SRMA	2	.88	.69	.70	.76	.72	.62	.73	.60										
	2-1	.76	.60	.44	.65	.57	.55	82	.60										
	2-2	.64	.44	.82	.47	.38	.41	.41	.35										
	2-3	.81	.70	.48	.67	.84	.55	.68	.59										
	2-4	.76	.57	.55	.77	.61	.57	.61	.49										
RMA	3	.84	.77	.48	.74	.67	.70	.72	.68	.77	.71	.48	.74	.68					
	3-1	.77	.68	.49	.71	.58	.63	.65	.57	.77	.70	.50	.69	.70					
	3-2	.79	.75	.45	.65	.64	.66	.69	.66	.70	.65	.43	.70	.60					
	3-3.	.80	.71	.44	.78	.64	.66	.68	.62	.76	.70	.43	.71	.71					
	3-4	.73	.70	.43	.60	.59	.66	.62	.62	.65	.58	.43	.64	.53					
K-SIAMA	4	.67	.67	.43	.54	.49	.56	.52	.60	.60	.51	.41	.55	.54	.75	.64	.73	.67	.70
	4-1	.58	.65	.30	.42	.42	.53	.49	.60	.46	.44	.29	.45	.37	.72	.55	.74	.61	.72
	4-2	.49	.36	.45	.48	.37	.34	.32	.30	.55	.37	.42	.46	.56	.44	.48	.38	.44	.35

주1. 모든 상관은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p < .01).

주2. 1. K-IRMA, 1-1. 여자의 의도가 있다, 1-2.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 1-3. 여자가 요구했다, 1-4. 여자가 거짓말했다, 1-5 여자의 행실이 나쁘다, 1-6 진짜 강간이 아니다, 1-7. 강간은 일탈적 사건이다, 2. K-SRMA 2-1. 진짜 강간이 아니다, 2-2.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 2-3. 여자가 거짓말했다, 2-4. 여자가 요구했다, 3. RMA 3-1.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3-2.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3-3.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3-4.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 4. K-SIAMA, 4-1. 최소화/변명, 4-2. 비난.

K-IRMA 척도의 경우 척도 내에서 전체와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72 ~ .85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하위요인 별 상관은 .40 ~ .71로 보통 수준의 상관이었다. K-IRMA와 K-SRMA의 관계에서 K-IRMA 척도의 총합과 K-SRMA의 전체 총합 및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64 ~ .88로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K-IRMA와 K-SRMA의 각 하위요인 별 상관은 .35 ~ .84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K-IRMA와 RMA의 관계에서 K-IRMA 척도의 총합과 RMA의 전체 총합 및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73 ~ .84로 높은 수준이었다. K-IRMA와 RMA의 각 하위요인 별 상관은 .43 ~ .75로 보통 수준의 상관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K-IRMA와 K-SIAMA의 관계에서 K-IRMA 척도의 총합과 K-SIAMA의 전체 총합 및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49 ~ .67로 적합한 수준의 상관이었다. K-IRMA와 K-SIAMA의 각 하위요인 별 상관은 .30 ~ .65로 낮은 상관에서 보통 수준의 상관

을 보였다.

K-SRMA 척도의 경우 척도 내에서 전체와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78 ~ .90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하위요인 별 상관은 .47 ~ .70으로 보통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K-SRMA와 RMA의 관계에서 K-SRMA 척도의 총합과 RMA의 전체 총합 및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65 ~ .77로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K-SRMA와 RMA의 각 하위요인 별 상관은 .43 ~ .71로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K-SRMA와 K-SIAMA의 관계에서 K-SRMA 척도의 총합과 K-SIAMA의 전체 총합 및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46 ~ .60으로 적합한 수준의 상관이었다. K-SRMA와 K-SIAMA의 각 하위요인 별 상관은 .29 ~ .56로 낮은 수준의 상관부터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RMA 척도의 경우 척도 내에서 전체와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88 ~ .97로 높은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하위요인 별 상관은 .70 ~ .86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RMA와 K-SIAMA의 관계에서 RMA 척도의 총합과 K-SIAMA의 전체 총합 맞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44 ~ .75로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RMA와 K-SIAMA의 각 하위요인 별 상관은 .35 ~ .74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K-SIAMA 척도의 경우 척도 내에서 전체와 각 하위요인의 상관이 .70 ~ .90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이었다. 하위요인 별 상관은 .30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동일방법편의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 수는 13개이며,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은 40.217%로 동일방법편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강간통념 수용 척도 4가지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IRMA는 7개 요인을, K-SRMA와 RMA는 4개 요인을, K-SIAMA는 2개 요인을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네 가지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비교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하나라도 한

표 3.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모형 합치도

척도	x^2	df	TLI	CFI	RMSEA
K-IRMA	577.413	276	.91	.92	.06
K-SRMA	307.412	97	92	.94	.08
RMA	537.250	155	.90	.92	.09
K-SIAMA	296.194	97	.93	.94	.08

표 4.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측정도구별 비교(n=306)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유형		경험 유무	K-IRMA		K-SRMA		RMA		K-SIAMA	
			평균순위	Z	평균순위	Z	평균순위	Z	평균순위	Z
데이트 성폭력 경험(하나 이상 경험)		예(n=46)	215.82	-5.18	204.85	-.4.27	216.67	-5.26	219.96	-5.53
		아니오(n=260)	142.48	***	144.42	***	142.32	***	141.74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다.		예(n=41)	214.95	-4.78	203.61	-3.90	215.37	-4.82	218.18	-5.04
		아니오(n=265)	143.99	***	145.75	***	143.93	***	143.49	***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예(n=21)	241.98	-4.75	219.14	-3.53	248.26	-5.10	257.86	-5.61
		아니오(n=285)	146.98	***	148.66	***	146.52	***	145.81	***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예(n=24)	229.52	-4.39	209.85	-3.25	237.04	-4.83	233.54	-4.62
		아니오(n=282)	147.03	***	148.70	***	146.39	***	146.69	***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예(n=17)	256.26	-4.93	228.41	-3.59	263.18	-5.27	273.12	-5.74
		아니오(n=289)	147.46	***	149.09	***	147.05	***	146.46	***
성별	남자 (n=149)	예(n=32)	102.41	-4.06	94.50	-2.89	98.88	-3.53	104.55	-4.37
		아니오(n=117)	67.50	***	69.67	***	68.47	***	66.92	***
	여자 (n=157)	예(n=14)	105.36	-2.28	103.14	-2.09	109.89	-2.68	107.18	-2.44
		아니오(n=143)	76.42	*	76.64	*	75.98	**	76.24	*
연령대	20대 (n=80)	예(n=6)	60.58	-2.20	55.83	-1.68	49.08	-.94	58.58	-1.99
		아니오(n=74)	38.87	*	39.26		39.80		39.03	*
	30대 (n=72)	예(n=12)	46.50	-1.82	45.21	-1.58	48.13	-2.13	49.04	-2.30
		아니오(n=60)	34.50		34.76		34.18	*	33.99	*
	40대 (n=77)	예(n=13)	59.58	-3.66	60.31	-3.78	59.65	-3.67	60.92	-3.90
		아니오(n=64)	34.82	***	34.67	***	34.80	***	34.55	***
	50대 (n=77)	예(n=15)	46.10	-1.37	38.77	-.05	49.57	-2.04	50.03	-2.13
		아니오(n=62)	37.28		39.06		36.44	*	36.33	*

*p < .05, **p < .01 ***p < .001

사람은 46명,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260명이었다. 각 측정도구에 따른 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의 유형과 상관없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을 성별과 연령대로 세분화하여 강간통념 수용 척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전체 306명 중 남자는 149명으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하나라도 한 사람은 32명,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117명이었다. 여자는 157명으로, 가해 경험을 하나라도 한 사람은 14명, 없는 사람은 143명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강간통념 측정 척도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대 연령에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6명, 경험이 없는 사람은 74명이었고,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K-IRMA와 K-SIAMA 척도에서만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 중에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명, 경험이 없는 사람은 60명이었고,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RMA와 K-SIAMA 척도에서만 나타났다. 40대 중에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명, 경험이 없는 사람은 64명이었고,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모든 척도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0대 중에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명, 없는 사람은 62명이었고,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도 RMA와 K-SIAMA 척도에서만 나타났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비교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하나라도 한 사람은 11명,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295명이었다. 각 측정도구에 따른 비교는 표 5에

표 5.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측정도구별 비교(n =306)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유형	경험 유무	K-IRMA		K-SRMA		RMA		K-SIAMA	
		평균 순위	Z	평균 순위	Z	평균 순위	Z	평균 순위	Z
디지털 성폭력 경험 (하나 이상 경험)	예 (n =11)	257.50	-3.97 ***	240.68	-3.33 ***	259.91	-4.07 ***	264.86	-4.26 ***
	아니오 (n =295)	149.62		150.25		149.53		149.35	

*** $p < .001$

제시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을 성별과 연령대로 세분화하여 강간통념 수용 척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전체 306명 중 남자는 149명으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을 하나라도 한 사람은 8명,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141명이었다. 여자는 157명으로, 가해 경험을 하나라도 한 사람은 3명, 없는 사람은 154명이었다.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든 척도에서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차이에서 K-SRMA, RMA, K-SIAMA 척도에서 유의미하였다.

연령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강간통념 측정 척도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대, 30대, 50대 중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명으로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40대 중에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8명, 경험이 없는 사람은 69명이었고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모든 척도에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비교

사회적 바람직성과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표 6. 성별과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측정도구별 비교(n=306)

구분		경험유무	K-IRMA		K-SRMA		RMA		K-SIAMA	
			평균 순위	Z	평균 순위	Z	평균 순위	Z	평균 순위	Z
성별	남자 (n=149)	예 (n=8)	126.13	-3.45 ***	109.00	-2.29 *	125.13	-3.38 ***	128.06	-3.58 ***
		아니오 (n=141)	72.10		73.07		72.16		71.99	
	여자 (n=157)	예 (n=3)	124.83	-1.76	131.50	-2.02 *	132.50	-2.07 *	137.33	-2.25 *
		아니오 (n=154)	78.11		77.98		77.96		77.86	
연령대	40대 (n=77)	예 (n=8)	63.75	-3.32 ***	59.38	-2.73 *	64.88	-3.47 ***	67.25	-3.80 ***
		아니오 (n=69)	36.13		36.64		36.00		35.72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사회적 바람직성과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상관분석(n=334)

	K-IRMA	K-SRMA	RMA	K-SIAMA
사회적 바람직성	-.07	-.13*	-.07	-.12*

* $p < .05$

상관분석을 위해 334명 자료를 활용하였다. 334명 자료에서 성별은 남성 161명(48.2%), 여성 173명(62.8%)이었고, 연령대는 20대 82명(24.6%), 30대 84명(25.1%), 40대 86명(25.7%), 50대 82명(24.6%)이었다. 분석 결과 모든 척도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K-SRMA 척도와 K-SIAMA 척도에서만 유의하였다(표 7).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상관은 다음과 같다. K-IRMA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 여자가 거짓말했다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13, $p < .05$). K-SRMA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에서는 여자가 거짓말했다(r = -.14, $p < .01$), 여자가 요구했다(r = -.12, $p < .05$), 진짜 강간이 아니다(r = -.14, $p < .01$)은 아주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와의 부적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RMA 척도와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 피해자 성경험에 대한 지각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13, $p < .05$). K-SRMA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에서는 최소화/변명(r = -.12, $p < .01$)은 아주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비난 하위요인과의 부적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이 연구는 국내에서 타당화된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간의 비교를 통해 강간통념의 하위개념과 각 척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강간통념 척도는 한국판 일리노이 강간통념 수용(K-IRMA) 척도, 한국판 미묘한 강간통념 수용(K-SRMA) 척도, 한국판 강간통념 척도(RMA),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SIAMA)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척도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척도의 총점은 다른 강간통념 척도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낮게는 r = .29로 적합한 수준의 상관을, 제일 높게는 r = .88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강간 및 성범죄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요인들도 있지만, 척도 별로 측정하는 하위요인 간의 차이가 있어 강간통념이 다차원적 개념임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구체적으로 보면, K-IRMA, K-SRMA, RMA의 하위요인인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와 '여자가

요구했다'의 상관은 .70 ~ .77로,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과 '여자가 거짓말했다'의 상관은 .64 ~ .84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해당 하위요인이 유사한 개념의 강간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측정도구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도 있었는 데 K-IRMA 하위요인 중 '강간은 일탈적 사건이다'는 K-IRMA 하위요인 중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와 상관이 .41, K-SRMA 척도의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와 .35로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이었다. 여기서 '강간은 일탈적 사건이다'는 강간 피해는 주변 사람이나 친근한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피해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다.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하는 이유는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닌 조절할 수 없는 성욕 때문이라는 합리화와 관련이 있다. 두 하위요인은 공통적으로 강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지만, 피해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해 행동의 합리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적 낮은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K-SIAMA의 하위요인 중 비난은 K-IRMA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30 ~ .49, RMA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35 ~ .48로 낮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K-IRMA의 '강간은 일탈적 사건이다'와 .30, RMA의 피해자의 성 경험에 대한 지각과는 .35로, 강간에 대한 다른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피해자도 비난받을 만하다는 통념'은 '강간은 일탈적인 사건'이라는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구분되는 고정관념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측정도구 K-SRMA의 총점과 하위요인의 관계는 .37 ~ .56으로 다른 측정도구에 비해 4개의 하위요인에서 적절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SRMA 척도가 성범죄의 피해 원인을 피해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수정 및 개발하여 미묘한 수준으로 피해자 비난 정도를 측정하려는 원저자의 의도와 부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McMahon, & Farmer, 2011).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 강간통념을 하나의 통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Burt, 1980; Feild, 1978; 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둘째,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높았다. 네 가지 척도에서 집단 간 강간통념 수용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강간통념을 잘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남 32명, 여 14명)과 없는 집단(남 117명, 여 143명)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녀 모두 네 가지 척도에서 집단 간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관련 없이 가해자의 강간통념 수용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네 가지 측정도구가 모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가해 집단과 가해 경험이 없는 집단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도구에 따라서 집단 간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유의미하게 측정

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이는 데이트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유의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트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20대에서는 비교적 구어체를 덜 사용하는 K-IRMA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나타났다. 반면 30대, 40대, 50대는 1990년대에 개발된 RMA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강간통념 수용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어체로 이루어진 문항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배경에 맞는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한 IRMA의 원저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즉, 비교적 현재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반영된 K-IRMA의 척도가 20대의 강간통념 수용을 측정하는 데 유용함을 의미하며, 추후에도 변화하는 문화적 배경에 맞게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문항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K-SIAMA 척도의 경우 모든 연령의 가해 경험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했다. 이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데이트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높았다. 두 집단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모든 측정도구에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 집단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남 8명, 여 3명)과 없는 집단(남 141명, 여 154명)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자의 경우 연령대가 40대인 경우, 모든 척도에서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여자의 경우 K-IRMA 척도에서만 두 집단 간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연구 결과(김은경, 2001)와 일치한다. 나아가 남성 40대의 강간통념이 더 잘 측정된다거나 여성의 경우 K-IRMA 척도가 덜 민감하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으나 해당 사례 수가 적어서 과잉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사례 수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네 가지 척도 중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11명)과 없는 집단(295명) 간의 평균 순위 차이가 K-SIAMA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폭력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집단의 K-SIAMA 평균순위가 네 가지 척도 중 제일 높았으며, 경험이 없는 집단의 K-SIAMA 평균순위는 네 가지 척도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양분되었음을 시사한다. 성별과 연령 무관하게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된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문화체육관광부, 2022), 성범죄로 정의되지 않은 경우는 강간통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재미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면(김은경, 200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경향성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위 결과에서의 상반된 양상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강간통념은 K-SIAMA 척도가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적 바람직성과 강간통념 수용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측정도구에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반영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거나 수용 가능하다고 믿는 응답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Grimm, 2010). 즉,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의견보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만한 수준의 강간통념을 측정하여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Suarez, & Gadalla, 2010). 한편,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과 강간통념 수용 차이의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Spohn, 1993)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K-SRMA 척도와 K-SIAMA 척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해당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성을 함께 측정하여 함께 고려하는 것이 왜곡된 반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된 대상이 서울(23%)과 대전(29%)에 다소 편중되어 전국적인 표집이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어울러 강간에 대한 편견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지역에 있는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트 및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표본수가 적어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일반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해 경험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네 가지 척도의 구성 개념 및 개발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설문을 진행했으나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점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의식적 반응으로 인해 외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추후 연구에는 조사에 대한 민감성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넷째, 이 연구는 데이트 및 디지털의 가해 경험 유무로 집단을 비교하여, 피해 경험 집단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간의 다차원적인 구성된 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각 측정도구의 특징을 설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K-IRMA, K-SRMA, RMA 모두 여자가 은연중에 성관계를 허락했다와 관련된 통념인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여자가 요구했다'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일 수 있다는 통념인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여자가 거짓말 했다'의 하위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두 하위요인은 모두 피해자 비난과 관련된 하위요인으로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실

제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ssell, & Hand, 2017). 강간통념의 다양한 구조를 이해하면 보다 명확하고 세심한 인지행동치료적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강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을 발견하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남자는 의도하지 않았다'하위요인에 관련된 문항을 많이 수용할 경우, 강간을 합리화하는 인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신념을 수정할 수 있으며, '여자가 요구했다',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를 많이 수용할 경우 이성 관계에서 과잉일반화하는 사고를 알아차리고 인지적 재구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성범죄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간통념은 성범죄자의 대표적인 인지적 왜곡으로써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다(Burt, 1991; Brownmiller, 1976). 따라서 성범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측정도구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한 후, 상담 혹은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인지행동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비교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실제로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최광성, 변상해, 2020). 강간통념이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고려했을 때, 강간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치료를 실시했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측정도구의 성격에 맞게 활용한다면 성범죄자들의 강간통념 수용 수준을 낮추고 재범을 예방하는 후속 연구들로 이어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성 예방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강간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유재훈, 2000), 이 시기에는 강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이 필요한 바이다. 따라서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성격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 혹은 교육적 개입은 왜곡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봉, 공정식 (2017). 왜곡된 성관념이 성폭력 무고사건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안전문화연구, (1), 41-60.

강춘희, 권재환 (2021). 재범위험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07-719.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권인숙, 이건정,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김영희 (1985). Feminist Therapy의 이론적 고찰. 인간이해, 7, 13-33.

김은경 (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 72-117.

대검찰청 (2022).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2022년 2분기). 23, 18-20.

문화체육관광부 (202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11-12.

박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송원영 (2021).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 (K-SIAMA) 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3), 185-200.

오숙희, 강희순, 김윤희 (2010). 남· 녀 대학생의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2), 249-257.

유재두, 송병호 (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133-165.

유재훈 (2000). 청소년의 강간 통념, 성 역할 태도 및 비행 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정아 (2023). 한국판 강간통념 척도(IRMA, SRMA)의 타당화 및 비교.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도경, 김형빈 (2022).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567-581.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장미정 (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2차 피해 유발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광성, 변상해 (2020). 교정시설 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담론, 14(3), 117-143.

최윤정, 박성정, 김효경 (2020). 학교 양성평등 지표를 활용한 교육환경 진단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52, 103-114.

Abel, G. G., Gore, D. K., Holland, C. L., Camps, N., Becker, J. V., & Rathner, J. (1989). The measurment of the cognitive distortions of child molesters. *Annals of sex*

research, 2(2), 135-152.

Beshers, S., & DiVita, M. (2021). Changes in rape myth acceptance among undergraduates: 2010 to 2017.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 (19-20), 9371-9392.

Birns, B., Cascardi, M., & Meyer, S. L. (1994). Sex role socialization: Developmental influences on wife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1), 50-59.

Boxley, J., Lawrance, L., & Gruchow, H. (1995). A preliminary study of eighth grade students' attitudes toward rape myths and women's roles. *Journal of School health, 65*(3), 96-100.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Brownmiller, S. (1976).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British : Penguin Books.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Davies, M., Gilston, J., & Rogers, P. (2012).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rape myth acceptance, female rape myth acceptance, victim blame, homophobia, gender roles, and ambivalent 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4), 2807-2823.

Edens, J. F., Buffington, J. K., Tomicic, T. L., & Riley, B. D. (2001). Effects of positive impression management on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Law and Human Behavior, 25*(3), 235-256.

Fei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2), 156.

Franiuk, R., Seefelt, J. L., Cepress, S. L., & Vandello, J. A. (2008). Prevalence and effects of rape myths in print journalism: The Kobe Bryant case. *Violence against women, 14*(3), 287-309.

Gardner, R. C., MacIntyre, P. D., & Lalonde, R. N. (1995). The effects of multiple social categories on stereotyp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7*(4), 466.

Grimm, P. (2010). *Social Desirability Bias in Encyclopedia of Marketing.* Hoboken, NJ: Wiley.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Guilford JP. (1956). *Fundamental Statistic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New York, NY: McGraw-Hill

Hall, G. C. N., & Hirschman, R. (1991). Toward a theory of sexual aggression: a quadripartite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5), 662.

Harman, H. H. (1976). *Modern factor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yes, R. M., Lorenz, K., & Bell, K. A. (2013). Victim blaming others: Rape myth acceptance

and the just world belief. *Feminist Criminology, 8*(3), 202-220.

Helmus, L., Hanson, R. K., Babchishin, K. M., & Mann, R. E. (2013). Attitudes supportive of sexual offending predict recidivism: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14*(1), 34-53.

Hogge, I., & Wang, Y. W. (2022). Revising the Male Rape Myths Scal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3*(4), 422-433.

Kassing, L. R., Beesley, D., & Frey, L. L. (2005). Gender role conflict, homophobia, age, and education as predictors of male rape myth acceptan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4), 311-328.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Maddocks, S. (2018). From non-consensual pornography to image-based sexual abuse: Charting the course of a problem with many names. *Australian Feminist Studies, 33*(97), 345-361.

Masser, B., Viki, G. T., & Power, C. (2006). Hostile sexism and rape proclivity amongst men. *Sex Roles, 54*(7), 565-574.

Marshall, W. L., & Hambley, L. S. (1996). Intimacy and loneliness, and their relationship to rape myth acceptance and hostility toward women among rapis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4), 586-592.

McKnight, P. E., & Najab, J. (2010). Mann Whitney U Test.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1-1.

McMahon, S., & Farmer, G. L.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 Research, 35*(2), 71-81.

Nunes, K. L., Pettersen, C., Hermann, C. A., Looman, J., & Spape, J. (2016). Does change on the MOLEST and RAPE scales predict sexual recidivism?. *Sexual Abuse, 28*(5), 427-447.

Payne, D. L.,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its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1), 27-68.

Powell, A., Henry, N., Flynn, A., Scott, A. (2019). Image-based sexual abuse: The extent, nature, and predictors of perpetr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ustralian resi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2*, 393-402.

Russell, K. J., & Hand, C. J. (2017). Rape myth acceptance, victim blame attribution and Just World Beliefs: A rapid evidence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7,* 153-160.

Schewe, P. A., & O'donohue, W. (1993). Sexual abuse prevention with high-risk males: The roles of victim empathy and rape myths. *Violence and Victims, 8*(4), 339-351.

Spohn, R. B. (1993). Social desirability correlates for acceptance of rape myth. *Psychological reports, 73*(3), 1218-1218.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Strömwall, L. A., Alfredsson, H., & Landström, S. (2013). Blame attributions and rape: Effect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lationship level.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8*(2), 254-261.

Suarez, E., & Gadalla, T. M. (2010). Stop blaming the victim: A meta-analysis on rape myth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1), 2010-2035.

Thelan, A. R., & Meadows, E. A. (2022).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subtle version: Using an adapted measure to understand the declining rates of rape myth accepta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9-20)

Urban, R. E., & Porras Pyland, C. (202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gender inclusive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21-22)

Warrick, C. (2005). The vanishing victim: Criminal law and gender in Jordan. *Law & Society Review, 39*(2)

원고접수일: 2023. 06. 30.
수정원고접수일: 2023. 11. 13.
게재결정일: 2023. 12. 05.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2023. Vol. 23, No. 4, 361-383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Rape Myths Scales

Jeong-A Yu [1)] Wonyoung Song[2)]

[1)]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M.A
[2)]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rape myths by comparing four scales that assess rape myth acceptance. Additionally, it sough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easurement instruments by analyzing rape myth acceptance based on participant characteristics. The Illinois Rape Myths Scale (K-IRMA), the Korean version of the Subtle Rape Myths Scale (K-SRMA), the Korean version of the Rape Myths Scale (RMA), the Korean version of the Image-Based Sexual Abuse Belief Acceptance (K-SIAMA), dating and digital sexual assault experiences, and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 were administered to 306 adults (149 males, 157 females) nationwide and subjected to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several important insights. First, the total scores of the four scales measuring rape myth acceptance demonstrated a range of correlations, ranging from $r = .29$ ($p < .001$) for the lowest correlation to $r = .88$ ($p < .001$) for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subscales. Second, both the dating and digital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group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rape myth acceptance compared to the non-victimization group across all measurement instruments. Third, the K-IRMA scale exhibited significance in measuring rape myths among individuals in their 20s, while the RMA scale was significant for individuals in their 30s, 40s, and 50s. The K-SIAMA scale proved to be significant in measuring myths related to digital sexual offenses. Furthermore, the K-SRMA scale displayed a significant inverse relationship with social desir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rape myths represent a common concept across the four measurement scales, they also possess distinct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with some subfactors displaying low correlations. As a result, the selective use of each scale according to specific purposes is recommended. Moreover,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subject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in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rape myth acceptance. The differentiation of perceptions and measures related to rape myths may contribute to more targeted treatment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s for sex offenders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gnitive behavioral educational materials for preventing sexual offenses.

Key words : Rape Myth, Illinois Rape Myth Scale(K-IRMA), Subtle Rape Myth Scale(K-SRMA), Rape Myth Scale(RMA), Image-based sexual abuse belief acceptance(K-SIAMA)